

과태료 지방환원은 교통안전 확립의 첫걸음

의정대상

나광국

전남도의원



지난 4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에서 스쿨존의 제한속도 탄력 운영이 선정되는 등 최근 들어 스쿨존 제한속도를 24시간 내내 규제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심야와 새벽에도 규제하는 것이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90%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한다. 특히 오후 2시~8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 시간대에만 전체 사고의 약 59%가 발생한다. 또한 전남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 넘게 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스쿨존의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와 단속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22개 시·군에 설치된 단속장비는 741개로 2019년 대비 30배 이상 늘었고, 단속건수 또한 지난해 기준 26만9158건으로 2022년 대비 9% 이상 증가했다.

통계자료만 본다면 운전자 편의를 위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심야 및 새벽 시간

에는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따라서 스쿨존 제한속도의 탄력 운영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례를 찾아보면 강원도는 민선 8기 출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재 10곳에서 탄력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북은 작년 도민 설문조사에서 80%의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14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남 또한 작년 부터 2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올해에는 총 7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은 도시보다 농촌이 많고 야간과 새벽에는 어린이는 물론 일반인 통행도 드물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민 만족도가 높고 어린이 사고 건수도 늘지 않는다면 강원과 전북처럼 최소 10곳 이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려면 해당 학교 학부모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 등 모든 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어 주민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탄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신규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이 모두 지자체 부담임에 따라 수요가 있어도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대표적으로 가변형 LED 표지판 설치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고, 이 외에 바

닥 도색, 안내 표지판 교체,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다양한 시설물 교체 및 유지 비용이 추가된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비를 들여 설치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 수입으로 잡아야 한다.

현재 제도상 지자체 예산으로 단속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이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지방세 수입이 아니라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작년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약 474억원 정도의 과태료가 징수되었는데 이를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스쿨존 속도 제한의 탄력 운영을 통해 도민 편의와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과태료 수익을 지방으로 환원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 이를 통해 스쿨존 탄력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예산을 충당하고 더 나아가 지역 전체의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의 협력과 설득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을 이루어야 할 때다.

社說

재보선 진땀 승리한 민주, 민심 되새기길

민, 영광·곡성군수 당선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진보당의 돌풍,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텃밭에서 이기고도 진 것 같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전체 3만1729명 투표수 중 1만2951표(41.08%)를 획득, 당선됐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9683표(30.72%)를 얻었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8373표(26.56%), 무소속 오기원 후보 512표(1.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례적으로 3차례 지원유세, 당 조직력이 총동원된 상황에서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고, 오히려 혁신당과 진보당의 선전으로 무려 57%대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입장에선 찻잔의 절반이 넘는 승리일 것이다.

곡성군수 재선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55.26%(1만5753표 중 8706표)로 농민 출신 혁신당 박웅두 후보(35.85%, 5648표), 국민

소속 이성로 후보(5.39%, 850표)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민주당의 과반이상의 지지로 자존심은 지켰지만 혁신당 후보가 30%대 넘는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선전한 점은 민주당이 텃밭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민심 회초리’로 읽힌다.

‘경선=당선’ 공식에 심취한 민주당 내 인식에 반발한 민심이 이번 재선거에서 표출됐다는 평가다. 진보당 입장에서는 차기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아성을 뒤흔들 수 있는 대항마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민주당이 아닌 대안 세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때만 호남을 외치는 민주당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재보선 선거때보다 더 냉혹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 걸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선거가 끝난 만큼, 단체장의 결원으로 울스 톱된 영광·곡성 군정을 빠르게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민주당의 전폭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재선거를 치르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약직으로 자살방지가 말이 되는가

처우개선·전문성 키워야

매년 광주·전남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자살사례관리자’가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열악한 처우 탓에 부실한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광주 244명, 전남 311명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는 2023년에만 514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자살을 시도해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사망자도 있지만 목숨을 건진 이들도 많다. 자살시도자들의 재시도 방지를 위해 전국에 자살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살 사후관리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진행하고 있으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상담과 신체·정신적 치료를 통해 자살재시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국에 87개소, 광주와 전남은 각각 2개소(△광주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전남 목포중앙병원·성가톨릭병원)가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시설도 부족하지만 자살시도자를 관리하기 위한 자살사례 관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한 상태다. 자살사례 관리자는 응급처치가 끝난 자살시도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기 전 최초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례관리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22.5개월에 그쳐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일관성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사례관리자의 고용 불안정이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전문성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매년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다. 삶을 포기하고 절망의 끝에 선 자살 위험군을 보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일하다. 자살 사례관리자의 업무강도를 낮추기 위한 인력확충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 만큼 효과적 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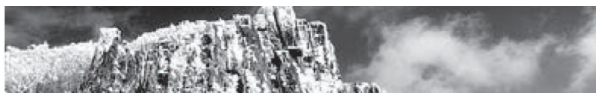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16일(현지시각) 미 뉴욕주 뉴욕의 시티 필드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4선승)3차전 뉴욕 메츠와 경기 8회 초 3점 홈런을 친 후 세리머니하고 있다. 다저스가 8-0으로 승리해 2승1패를 기록했다.

AP/뉴시스

서석대



2006년 1월 19일 오후 2시. 미국 항공우주국이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 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전 세계에 알렸다. 우여곡절 끝에 첫 걸음을 내디딘 명왕성 탐사. 1930년 미국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한 이후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미지의 행성이었다. 궤도는 물론이고 대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을 정도였다. 더욱이 그 해 국제천문학연합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던 명왕성을 왜소행성으로 강등시켰다. ‘죽음의 별 명왕성의 신비를 풀기 위한 인류의 도전’이라는 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콜린 하트먼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뉴 호라이즌스 호가 명왕성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당장 전례가 없었던 우주 탐사계획을 구상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우주선 제작에 착수할 자금 확보를 위해 탐사계획서를 작성했다가 6차례 실패했고, 정치적 압박과 대기업 등의 방해로 계획이 무산될 위기도 수차례 이어졌다.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인 48억km를 ‘총알의 14배’ 속도인 초속 13.78km로 날아간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그야말로 14년의 시간과 2500명의 과학자가 집념과 끈기로 쌓아 올린 기적의 우주 드라마였다. (앨런 스톤 저 뉴호라이즌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

명왕성의 신비

성과도 컸다. 2015년 7월 14일, 명왕성과 1만 2550km까지 접근한 뉴호라이즌스 호는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과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스틱스 등 5개의 위성을 관측했고 명왕성을 촬영해 지구로 보낸 사진은 전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했다. 근접 비행 당일 명왕성을 보려는 NASA 웹 사이트 접속자 수가 20억 명을 넘기도 했다. 베일에 가려있던 태양계 끝, ‘카이퍼 벨트’도 탐사했다. 지금도 뉴호라이즌스 호는 지구에서 44.26광년 떨어진 카이퍼 벨트를 지나며 미지의 우주로 향하고 있다.

최근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명왕성의 달 카론에서 행성 탄생의 열쇠가 될 이산화탄소와 과산화수소 등의 물질들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한다. 우주 암석과의 충돌로 카론 표면에 이산화탄소가 뿌려지고, 카론 표면의 물 분자가 태양 방사선으로 분해돼 과산화수소가 생겼을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추정이다. 명왕성을 유명하게 만든 표면의 하트 무늬가 얼음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셀 수 없는 얼음과 바위로 이뤄진 카이퍼 벨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육안으로는커녕 망원경으로도 쉽게 볼 수 없는 명왕성. 그 차갑고 작은 행성의 신비로움이 오늘 따라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